

효성, 자동차 부품용 첨단소재 세계 점유율 1위

효성과 코오롱을 비롯한 한국 섬유업체들이 벤츠, BMW, 아우디,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유명 자동차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한국이 자동차 소재로 사용되는 섬유제품 부문에서 세계 최강국의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다.

23일 섬유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타이어용 소재인 타이어코드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45%를 기록하고 있다.

효성이 생산하는 타이어코드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물론 굿이어, 미쉐린 등 세계 유명브랜드에 납품되며 사실상 모든 자동차 브랜드에 쓰이고 있다. 타이어코드는 자동차 타이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고무에 넣는 섬유 보강재다. 효성은 또, 에어백용 원단과 시트벨트용 원사 분야에서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효성은 특히, 세계 최초로 고성능 신소재인 폴리케톤(Polyketone)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폴리케톤(Polyketone)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와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으로 이뤄진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다. 나일론 대비 충격강도는 2.3배, 내화학성은 30% 이상 우수하며 내마모성 역시 폴리아세탈(POM) 대비 14배 이상 뛰어나다. 폴리케톤은 우수한 내충격성, 내화학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동차·전기전자 분야의 내외장재 및 연료계통 부품 소재로 사용된다.

또, 초고강도·초고탄성률의 특성을 가진 슈퍼

섬유 보강재 ‘타이어코드’ 45%...에어백·시트벨트용 원단도 1위

코오롱·SK 등도 포드·BMW에 부품 공급...한국산 섬유 ‘약진’



효성 연구원들이 고성능 신소재 ‘폴리케톤’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자동차 부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효성은 오는 2021년까지 1조원을 들여 울산에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효성 제공>

섬유로서 타이어코드, 산업용 로프, 벨트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효성은 오는 2021년까지 1조원을 들여 울산시 남구에 폴리케톤 생산공장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폴리케톤은 물성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탁월해 향후 자동차 부품산업에 주도할 핵심 소재로 꼽히고 있다”며 “타이어코드와 시트벨트용 원사, 에어백용 원단, 스판덱스 등 현재 확보한 세계 1위 제품 외에 폴리케톤을 활용한 신소재·에너지·IT 소재 등의 분야에서 세계 1위 제품 목록에 ‘효성’의 이름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 역시 자동차용 첨단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13년 상용화에 성공한 ‘연료전지용 수분제어장치’는 현대차에서 생산되는 투싼 등 모든 수소연료전지차에 쓰이고 있으며, 해외 자동차 회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은 방탄복 소재로 알려진 헤라크론(아라미드)도 자동차용 소재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코오롱이 한화첨단소재와 공동개발한 ‘자동차용 아라미드 범퍼’는 기존 금속제품에 비해 무게는 절반이 가벼워진 반면 충돌에너지 흡수 능력은 대폭 개선돼 지난해 정부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코오롱의 에어백 쿠션은 GM과 포드 등에도 장착되고 있다.

SK케미칼과 삼양사가 공동 출자·설립한 섬유회사 휴비스는 접착제 등으로 쓰이는 저용점 섬유(LMF)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휴비스의 LMF 세계시장 점유율은 45%로, 벤츠와 BMW, 아우디 등 모든 자동차 브랜드에서 사용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최첨단 아파트 ‘대라수’ 분양

친환경 황토공법·태양광 발전 등

대라건설, 신창·운암에 166세대

대라종합건설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주거환경을 내세워 광주 신창·운암에 중소형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신창동 대라수(조감도)는 총166세대 68㎡(구2평형)를 주력으로 65㎡, 63㎡, 59㎡를 포함 총166세대, 운암동 대라수는 43㎡(구20평형), 42㎡ 총 64세대를 분양한다.

신창 대라수는 전 세대 친환경 황토공법, 상하세 대간 중간소음 방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홈 네트워크 시스템, 원격 난방 제어 스마트 시스템 보일러 등을 적용해 고품격 주거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대라수아파트는 배산임수형 지형으로 풍수지리상 산과 물이 조화를 이뤄 복이 들어온다는 최고의 명당 자리를 손꼽히고 있다.

편리한 교통도 큰 장점이다. 제2순환도로와 산월 IC, 빔고로 등이 단지와 가까워 시내 외 어디든 빠른 연결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고 수반 지구와 첨단지구의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와 금융기관, 관공서 등 풍부한 편의생활환경도 누릴 수 있다. 또 신창초·중, 수원중·고, 진흥중·고 등 부근에 우수한 명문 교육환경이 구축돼 있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운암동 대라수는 운암 생활권의 프리미엄과 합리적인 분양가로 다할 수 없는 최고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서광주IC 빔고로, 하남대로 등 쾌속 교통망으로 광주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 롯데슈퍼, 광주동림병원, 각종 금융기관 등이 인접해 생활이 편리하고 운암산 중의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에서 삶의 여유로운 힐링을 즐길 수 있다.

대라수아파트 신창·운암의 견본주택은 상무역 맞은편 전자랜드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28일 오픈 예정이다. 문의 062-383-7774.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금호타이어 파업 피해 눈덩이

매출손실 324억원...노-사 입장차 여전 장기화 우려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사 양측은 물론 지역경제의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2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4일간의 부분파업에 이어 17일부터는 7일째 전면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노사는 전면파업기간에도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측에 따르면,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매출손실은 지난 22일까지 총 324억원에 이른다.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불편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회사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사원들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직접적인 임금손실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까지 노조의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으로 인한 사원들의 임금손실액은 일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이며, 앞으로도 파업이 계속될 경우 사원들의 임금손실액은 물론 회사의 매출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는 최근 진행된 16차 교섭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회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의 파업 돌입 전부터 현장 호소활동까지 진행하며 파업에 대한 신중한 결정과 유보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회사의 최종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도 없이 파업을 강행했다”며 “노동조합과 사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결정된 파업에 대해 회사가 책임질 의무는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회사는 또 “파업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 제공이 없으면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근로계약 및 노조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노사가 각자 선택한 사항에 대한 결과는 선택한 당사자들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며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보전 요구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아파트 전세가, 광주 오르고 전남 내리고

광주 서구 0.16% 상승·전남 여수 0.16% 하락...폭 가장 커

광주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반면 전남은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주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광주 지역 아파트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7%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서구가 0.16% 상승하며 가장 많이 올랐고, 광산구 0.08%, 북구 0.01%순으로 올랐다. 동구와 남구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구는 주변환경이 우수한 풍암지구로 수요가 유입되고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5개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상위 5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전주대비 0.01% 하락하며, 지난주(0.0%)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여수의 하락폭 0.16%로 가장 컸다. 여수는 계절적 비수기와 웅천지구 내 5000여 가구의 신규공급 물량 영향으로 전세매물이 적체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주대비 가격이 떨어졌다.

한편, 지난 17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매

매가격은 전주대비 각각 0.11%, 0.02% 상승하며, 지난주(0.10%-0.00%)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특히, 광주는 1년간 오른폭이 15.7%(1억 5236만→1억7624만원)로 전국 광역시 중 대구(2억979만→2억5159만원, 19.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은, 중소기업 300억 지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300억원을 특별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총 30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으로 업체당 6억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로또복권 (제664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536,801,338	1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8,212,172	44
3	5개 숫자 일치	1,674,076	1,530
4	4개 숫자 일치	50,000	77,395
5	3개 숫자 일치	5,000	1,320,082

연제동 광명·새한 2차 특별분양

탁월한 생활인프라 & 미래가치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사이에 위치한 새한아파트는 79㎡, 방 3개와 욕실 2개 480세대의 고객선호도 100%로 구성된 중상형 아파트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남향 로얄층 1억8백만원 선착순(후 호 지정분양중)입니다.

양산초등학교가 바로 위치에 있으며, 대형 롯데마트 입점 예정이며 지하실 2호선 예정지입니다. 교통 또한 빔고로, 북광주 IC, 입암출대로 등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주위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개발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며, 시세보다 저렴하고 인기몰이 중 소형 아파트로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입니다.

- 3.3㎡당 400만원대 특가분양
- 즉시 입주 대응 70% 가능, 선착순 중·호 지정
- 높은 수익률 임대사업자 환영
- 남·양산지구 중심생활권 우수한 명문학교

상무지구 10분

임대사업자 환영

계약즉시 2,000만원 시세 차익/방 3개, 화장실 2개, 고객선호도 100%만족

특별분양 문의 (062)574-0079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문회사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차없이 20년은 내쁘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